

# '86 후반기 배합사료 가격전망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김치영

## ◎ 배합사료가격 판매과열로 안정

지난해 10월이후 식물성박류를 비롯한 일부 품목의 시세상승으로인해 금년도 중반쯤 다소 상승하리라던 국내 배합사료 가격이 사료공장의 판매경쟁과 일부 원료시세의 하락에 힘입어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중 사료협회산하 공장들의 월평균 배합사료 판매가격을 보면 일부품목이 전월 평균 가격에 비해 다소 미미한 상승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소 하락했고 대규모 공장들의 사료가격이 주로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전체 배합사료 판매가격이 크게 낮아진 셈이다. 최근 배합사료 판매가격의 하락은 일부 대기업의 가격선도에 의한 것으로서, 금년중 하반기의 원료구매가 보다 값싸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서둘러 반영된 느낌도 없지않다.

84년 이래 하락세를 보여온 국제사료곡물시장은 수요정체와 공급물량증가등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아직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이는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보면 다행스러운 일로, 즉 84년 이후 배합사료의 원료수입량은 해마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면에서는 감소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최고의 하락세를 보였던 미산 옥수수 및 주요원료 시세가 금년들어 소폭의 증가세를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산 옥수수, 아

(배합사료 판매가격)

(단위 원/kg)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어린송아지	240,35	240,54	240,57	239,49	238,52
중 송 아 지	202,23	201,80	201,69	201,54	200,81
큰 송 아 지	170,64	170,64	170,49	170,17	169,63
임 신 우	198,79	178,44	189,43	193,05	193,01
착 유 (1)	189,15	185,73	185,00	187,89	188,20
착 유 (2)	173,91	173,94	172,33	171,92	172,31
착 유 (3)	179,61	179,29	178,89	178,50	178,21
종 모 우	151,68	151,36	153,53	150,32	151,28
육 성 비 육	181,21	180,49	180,32	179,67	176,30
큰 소비육 1	168,79	168,18	167,44	167,35	166,98
큰 소비육 2	152,36	152,24	152,96	152,12	152,10

\* 20개 사료공장의 산술평균가격임

르헨티나산 옥수수, 중공산 옥수수, 사료용 소맥으로 이어지는 호재의 등장으로 인해 안정세를 지속할수 있었다. 특히 금년들어 큰 가격하락을 보인바 있는 사료용 소맥시세는 상반기 배합사료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따라서 금년도 후반기 배합사료 가격에 결정을 미칠 국제곡물 시장의 주요 변수와 최근의 수급동향을 살펴봄으로 금년 후반기의 배합사료가격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 ◎ 체르노빌 사태이후 곡물시세 급등

세계적인 사료곡물 수요감소와 수출국의 재고

누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장기적인 하향곡선을 그려오던 국제곡물시세는 지난 4월말 소련의 우크라이나 Kiev 지방에 위치한 CHERNOBYL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장기적인 하락국면에서 벗어나 상승국면으로의 전환이 예상되었다.

즉 소련 곡물생산의 5% 축산물 생산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과 인근 동구 지역 및 EC 지역에 있어서의 토양 및 대기오염으로 인해 농업 및 축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시카고 곡물거래소의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는 등 한때 불길한 조짐을 나타냈었다. 즉 마켓 주변에서는 소련의 긴급구매설이 계속 난무하였고 앞으로의 가격상승기대 속에 일부 투기군들은 구매물량을 늘려 나갔다.

당시 소련이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태로 인해 미산옥수수 100만톤과 아르헨티나산 옥수수 50~60만톤을 긴급 구매할 것이라는 루머로 인해 마켓이 일시적인 강세 현상을 보인바 있고, 또한 런던의 선임 시장에서도 소련이 미산 옥수와 아르헨티나산 옥수수 이외에도 EC로부터 최고 200만톤까지 곡물을 구매할 것이라는 루머가 나오면서 걸프선임 및 EC선임도 한때 강세현상을 보인바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CHERNOBYL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태로 인해 사고영향이 경미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실제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곡물재고량이 워낙 많기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이 없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곡물시세와 선임시세는 다시 안정을 유지했다. 그후 미농무성 및 서방측 전문가들이 CHERNOBYL 사태로 인한 곡물생산의 감소분은 전체 소련 곡물생산의 1% 이내에 달한다고 발표하였고 다시 국제곡물시장은 하향국면으로 돌입하였다.

### ◎ 미산 원율도 옥수수 하락

금년도 미국산 옥수수의 신곡파종이 거의 종결되어 가면서 금년도 신곡기준 원율도 옥수수 시세는 크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6월 20일

현재 시카고 곡물시장의 옥수수가격 추이를 보면 7월도의 경우 뷰셀당 2.3475불인데 반해, 9월도는 1.9725불, 12월도는 1.8975불로 원월도로 갈수록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때문에 최근월도 수입가격은 현재 C&F가격 기준으로 톤당 115불선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8월, 9월선적분은 110불, 10월 11월은 100불선에서 각각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같은 미산 옥수수시세의 하락현상은 미국 콘벨트지역의 순조로운 옥수수 수출부진등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 콘벨트지역의 식부작업은 지난 6월1일 현재 94%가 완료되어 지난해의 98%에 비하면 다소 뒤지고 있으나 과거 5개년 평균치인 89%에 비하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콘벨트지역중 조지아, 일리노이, 노오스 캐롤라이나, 텍사스지역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미네소타, 사우스타타코 타지역은 식부작업이 가장 늦어지고 있다. 이미 식부가 완료된 옥수수의 생육상태는 기후 조건의 호조로 인해 일부 조지아, 노오스 캐롤라이나를 제외한 전지역이 좋은 생육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10일 발표된 미농무성 작황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도 미산 옥수수의 생산량은 사상 유례없는 대풍작을 기록했던 지난해의 2억2,518만톤에 비해 14.5%가 감소한 1억9,242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금년도 기초재고량이 지난해에 비해 두배이상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도 미산옥수수의 총공물량은 2억9,115만톤으로 지난해의 2억6,712만톤에 비해 9% 늘어날 전망이다이며 가격수준도 지난해의 USDA 추정치인 뷰셀당 2불35센트에서 크게 떨어진 1.80~2.05로 전망되고 있다.

### ◎ 태국산 옥수수시세 급락

한때 CHERNOBYL 사태이후 농가출하물량이 급격히 줄고, 시세가 상승했던 태국산옥수수 역시 미산 옥수수의 원율도시세 하락에 영향을 받아 신곡수확기를 앞두고 크게 하락세를 나타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한발피해 등으로 인해 옥수수 생산량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행히 최근의 강우로 인해 어느정도 해갈이 해소되기는 했으나 6월5일까지만해도 일부 지역에선 강우부족으로 옥수수에 대한 큰 피해가 예상되기도 했다.

이때문에 금년도 태국산 옥수수의 생산량은 지난달 510만톤으로 추정 발표 하였으나 USDA는 다시 6월 10일 480만톤으로 하향조정 한 바 있다. 지난해 태국은 사상 유례없는 대풍작을 기록하여 평년작인 480만톤 수준을 크게 넘어선 520만톤을 기록한 바 있다.

이와같이 생산량이 다소 감소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구곡 및 신곡시세는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 한때 110불선 가까이 급등했던 태국산 옥수수시세가 C&F, 톤당 90불선으로 크게 떨어졌고, 최근에는 90불선마저 깨어지면서 C&F 톤당 88~89불선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같은 태국산 옥수수의 급락현상은 7~8월에 있어서 전통적인 태국산 옥수수의 수확압력(harvest presse)으로 인한 하락요인과 최근 미산 옥수수의 원월도시세 하락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태국내 Exporter들이 수확기에 닥아가면서 재고로 가지고 있던 구곡 옥수수를 처분하는데 따라 시세하락에 가속되고 있다.

태국산 옥수수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전반적인 타국산 옥수수시세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6월 23일 현재 중공산 옥수수시세는 지난 5월의 C&F 가격기준, 톤당 108에서 8불가까이 하락된 100불 수준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고 아르헨티나산 옥수수 역시 체로노빌 원자력발전소 사태 이후 113불선까지 올랐으나 최근에는 다시 106불대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 ◎ 사료용소맥시세 크게 하락

1983년 이래 사료용으로 수입 이용되고 있는 사료용 소맥의 수입물량은 1983년에 약 7만톤 가

량이 수입된 이래 1984년에는 약 80만톤, 지난 85년에는 100만톤으로 크게 신장되었고 금년에는 사료용 소맥수입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사료용소맥은 한국과 필리핀등에서만 사료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중 한국이 가장 큰 구매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85년 현재 사료용소맥의 주요 수출국은 호주, 캐나다, EC로 삼파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출가격은 금년 1월 C&F 가격 기준으로 톤당 118불대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지속되는 하락세로 인해 88불까지 크게 떨어졌다. 이와같은 큰폭의 가격하락은 그동안 가격균형을 이루어오던 호주와 캐나다의 사료용소맥 시장에 EC가 개입되면서 소맥전쟁이라 불릴만큼 치열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한국의 소맥시장에 있어서 일본 종합상사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캐나다의 사료용소맥의 경우 일본의 니쇼와이가 콘티넨탈, 카길, UGG 등을 제치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쓰이, 미쓰비시등도 호주의 사료용 소맥에 대해 관심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종합상사들이 사료용 소맥에 대해 관심을 높여가고 있는 것은 최근 엔화강세로 인해 일본 종합상사들의 수입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앞으로도 엔화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long term 베이스의 장기계약을 늘려나가고 있다. 현재 사료용 소맥이 사료적 가치면에서 옥수수에 비해 뒤지지 않으면서도 가격이 옥수수나 수수에 비해 유리했던 것은 수입국이 한국과 필리핀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식관법에 묶여 소맥의 사료적 이용이 어려우나, 향후 일본의 사료공장에서 사료용소맥사용이 가능해질때 앞으로 값싼 구매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 대두시세 안정세 지속

전반적으로 옥수수, 소맥등 곡류시세가 하락

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반해 대두 및 대두박 시세는 상대적으로 강세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두박의 경우 대두유수요의 정체현상으로 인해 대두박공급이 제한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으며, 대두박공급이 제한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으며,

대두역시, 옥수수나 타곡류에 비해 세계적인 생산량이 크게 늘지 않았고, 미국의 수출경쟁대상국인 브라질의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즉 지난 84/85년의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이 1,820 만톤이었던데 반해, 85/86

주요 사료원료 시세동향 C&F,

C&F, US \$/MT

품 목		원 산 지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현재
곡 류	옥 수 수	미 국	126	121	117	117	118	115
		태 국	106	104	110	107	107	89
		중 공	119	116	110	108	108	100
		아르헨티나	-	113	111	106	112	106
	수 수	미 국	116	113	113	108	114	116
		중 공	96	103	101	97	97	92
		아르헨티나	-	108	103	97	96	93
	소 맥	호 주	117	118	107	97	89	90
		캐 나 다	119	118	107	99	89	90
		E C	-	115	108	96	89	92
캐 나 다		110	106	96	95	95	93	
호 밀	E C	126	104	96	95	97	93	
강 피 류	소 맥 피	인도네시아	92	101	96	90	92	-
		스 리 랑 카	98	98	95	90	90	-
		아르헨티나	103	99	93	87	89	90
		칠 레	-	100	94	88	90	-
	G S P	캐 나 다	75	80	82	82	80	78
타 피 오 카	태 국	78	83	82	98	105	105	
식 물 성 박 류	대 두 박	미 국	214	214	219	211	208	205
		중 공	180	170	175	187	191	190
		브 라 질	-	-	218	215	213	217
		아르헨티나	-	-	218	215	-	203
	채 중 박	캐 나 다	151	147	166	164	158	156
		파 키 스 탄	-	-	-	-	-	116
		인 도	130	130	121	103	104	107
		중 공	-	113	110	99	94	85
		칠 레	-	137	135	124	121	109
	해 바 라 기 박	아르헨티나	-	131	104	105	109	112
중 공		-	108	104	106	99	105	

\* 최근월도 선적 가격임

년도 생산량은 1,300만톤으로 약 28.6%나 감소하였다. 또한 금년도 미국의 대두 생산량은 U-SDA 추정치에 따르면 5,171만톤으로 작년도 5,712만톤에 비해 9.5%가량 감소될 전망이다, 6월 15일 현재 미산 대두식부 진전상황은 전미국평균 81%로 85년 동기 88%에 비해 다소 뒤지고 있으나 과거 평균치인 80%에 비해서는 양호한 상태이다. 이때문에 미농무성은 금년도 미국산 대두시세가 뷰셀당 4.75~5.15불로 지난해의 5.1불 불수준에 비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 배합사료가격 안정유지

이상과 같이 국제곡물시장이 점차 수입국입장에 유리하게 전개되어 나가면서 금년도 하반기 국제곡물시장의 가격수준은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7월이후 태국산 옥수수와 10월이후 미산 옥수수의 수확출하등으로 인해 향후 배합사료 주종원료인 옥수수시세는 사상 유례없는 하락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미 사료용 소맥과 태국산 옥수수가 C&F기는 톤당 90불선이 깨어졌고, 미

산 옥수수의 10월선적물 역시 100불이하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같은 추세가 현재 상대적인 강세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대두박, 소맥피수수등 타품목에도 과급된다면 배합사료의 가격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점을 감안하여 최근 일부사료 공장에서는 서둘러 가격인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와같은 호조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입곡물절감대책과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지나친 배합사료생산증가가 억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배합사료 판매경쟁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미 일부 사료공장에서는 쿼터소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뭇튼 국제곡물시세의 하락으로인해 국내 배합사료가격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나 배합사료의 가격하락이 양축가의 경영수지와는 바로 직결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양축가의 경영수지를 높이는 최선의 방법은 국내 축산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축산물 가격안정을 꾀하고, 생산코스트를 최소화시켜 양축가의 순수익을 높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